

색 경 (穡經)

김 영 진

<농림부 축산국장·농박>

1. 옛 문헌소개 의의

필자는 금후 가금에 관련된 옛 문헌을 소개코저 하는 바 그 뜻을 먼저 기술하면 첫째로 우리는 너무나 서구문명에 집착된 나머지 우리의 선조들이 개발한 탁월한 과학기술이 저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농업은 자연환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수천년 이 풍토에 순화발전(馴化發展)된 경험적 과학기술이 후일의 농업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선조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그런 사실의 기록이 있는지 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농업관계 옛 문헌은 이조 중기이후 실학과(實學派)에 의해서 저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자한관(儒者閑官)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 많아 중국의 원본을 그대로 옮기거나 추상적인 것을 기술함으로서 우리 나라 자연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으나 개중에는 지금의 과학으로도 놀랄만한 사실들이 이미 수백년 전에 관찰(觀察) 또는 규명(究明)되어 이와 같은 옛 문헌의 이해는 앞으로 새로운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않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옛문헌은 언해(諺解)나 주해(註解), 현토(懸吐) 등이 있는 것이 있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으나 대부분 난해(難解)한 한문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한자(漢字)라 하더라도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고자(古字)가 많으며, 또 문헌에 따라서는 이두(吏讀)로 표시된 것조차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우리 농학도들은 읽고자 하여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상의 몇가지 의의를 지니면서 옛 문헌을 소개하여 동학들의 참고에 공하고자 하는 바이다.

2. 색경(穡經)에 대하여

색경은 이조 숙종 2년(李朝肅宗二年)인 1676년에 실학의 태두 박세당(朴世堂)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다. 따라서 약 300년전에 기술된 종합농서인 바 내용은 상·하(上·下, 乾篇·坤篇)권으로 되어있고 상권에는 일반 농작물 원예작물의 재배에 대한 기록이고, 하권에는 제상, 양잠에 이어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양에 대한 기록이 있다.

본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필사본(筆寫本: 붓으로 쓴 책)으로 다른 농서에 비하여 가금에 관한한 충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잠상고전(蠶桑古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선 입수되었기로 이번 호에는 색경 하권 가금(穡經下卷 家禽)에 관한 항을 번역 소개한다. 책의 이름인 색경(穡經)이란 뜻은 농작물 수확에 관한 경전이란 뜻이다.

3. 원문 소개

穡經 坤(下卷) 鷄

鷄種 水桑落時生者良形 小尾淺脚細短守窠小群
善育雛子 春夏生者不佳形 大毛澤脚鹿長遊蕩饒群
不守窠 產乳易墜

○鷄雛二十日內 無令出窠 飼以燥飯 出窠早不
允鳥鳶 與濕飯則 臍膿死

○鷄栖宜據地爲籠 籠內着棧 雖鳴群不朗而安穩
易肥又免狐狸之患

○燃柳薪殺鷄雛

○家政法 養雞二月 耕地作田一畝 秣粥洒之刈
生茅覆上 自生白虫 須置黃雌鷄十雄一於地上 作
屋方廣丈五 於屋下懸簣令鷄宿上 并作小屋覆鷄
得養子鳥不得就

[역문] 색경 곤(하권) 닭

닭의 종자는 물뽕(水桑)은 잎에 수분이 많은
魯桑을 뜻함)의 잎이 떨어지는 가을에 부화된
것이 좋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꼬리가 작고 다
리가 짧으며 가늘고 등우리를 잘 지키며 (산란
성이 좋다는 뜻) 적은 수로 무리지어 다닌다.

병아리를 잘 기르려자 하더라도 봄과 여름에
부화된 것은 아름답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으니
것이 많고 다리가 길어 사슴과 같이 길며 많은
무리를 지어 호탕하게 돌아다닐 뿐 아니라 등우
리를 잘 지키지 않고 산란기간이 짧다.

○병아리는 20일만에 부화되는데 부화즉시 등우
리에서 내보내지 말고 건조한 사료를 먹여야 하
며 등우리에서 너무 빨리 내어 놓아 까마귀와
솔개에게 즐거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분이 많은 습기 있는 먹이를 먹인즉 배꼽이
끓아서 죽게 된다.

○닭이 깃털일 마땅한 곳은 닭장이다. 닭장 안
에는 횃대를 놓아 밝지 않을지라도 닭의 무리가
편안하며 살찌기 쉬우게 하여주어야 하며 이렇
게 하므로써 여우나 너구리가 즐거워할 재환(災
患)을 없앨 수 있다.

○닭은 버들가지 나무(楡)를 불태워 굽는다.

○가정에서 기르는 법 : 2월에 닭을 기를려면 30
평의 경지를 밭으로 만들어 살아있는 띠풀(화본
과 야초)을 베어 덮고 그 위에 술과 죽을 끼었
으면 백색의 벌레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
이다. 이곳에 모름지기 황색의 암탉 열마리에
수탉 한마리 꼴로 넣어 둔다.

계사를 지움에 있어서는 넓이는 다섯길(五丈)
정도로 하고 계사 안에는 삼태기를 달아매어 닭
이 그 위에서 잘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서 작

은 등우리를 만들어 산란한 계란을 까마귀가 들
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一法 作垣屋 令狸鳥不得穿入 畜鷄其內 多
收枇糠胡互之類以養之 小槽貯水置旁爲洒去 地
一尺鑿 牆爲窠與栖齊冬月 著草以兌子凍三時 去
草以防虫 生於土上 任其產伏雛出 出外以罩籠
之加鷄鶉大選其中 如此則 鷄速肥 無暴園之害

○取雌鷄去雄 作栖窠一如前法 多與穀令肥 充則
一鷄生百餘外不雛食之 無咎名曰穀產

○餘小麥飯則易大 有病灌清油則愈 勿令失其時

○닭장을 만드는 한가지 방법으로는 평평한 닭
장을 짓되 너구리나 까마귀가 구멍을 뚫고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가축과 닭을 그 안에 넣고 곡
물의 쪽정이 밧 겨와 콩 종류 등을 많이 주어
기른다.

작은 물통을 두어 물을 저장하여 옆에 두고
닭의 번뇌(목이 마름)를 소거하게 하여 준다.
땅 한자리를 파서 닭을 치고 등우리를 만들어 겨
울철에 편안하도록 하여주며 풀을(건초)덮어 어
름이 어는 겨울 3개월간 어린 닭이 즐거우게
하여 주고 봄에는 깎아준 풀을 거두어 흙 위에
생기는 벌레를 막는다.

알을 품어서 나온 병아리(모계부화한 병아리)
는 밖에 내어 대로 엮은 죽농에 넣되 그안에 베
추리를 함께 넣어 크게 맴돌게 하면 닭이 속히
살이 찌고 전원(田園)을 망치는 해가 없다.

○암탉을 취하고 수탉을 버리며 앞서 말한 방법
으로 등우리를 만들고 살이 찌게 많은 곡물을 준
즉 닭 하나에 백여개의 알을 낳는바 부화용 이
외의 것은 알로 먹는다.

제앙(災殃)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곡산(穀產)
이라고 한다.

○밀을 먹이면 잘 자라며 병들었을 때 맑은 기름
을 주면 치료되나 그 적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鵝鴨

鵝鴨并一歲再伏者 爲良種 一伏者 得子小 大
率鵝三雌一雄 鴨五雌一雄 鵝初輩生子十餘 鴨
生數十 後輩皆漸小矣

○於屋下作窠 以防狐狸之害 多著細草於窠中煖
先刻白木爲卵形 每窠着一枚以誘之 不爾喜東西
浪生 不肯入窠其獨 窠者有爭窠之患 生子即收
取別着煖處 覆薪之 若停置窠中致凍死

○伏時大鵝十子 大鴨二十子 小者減之 多則難數起者不任爲種 其貧伏不起者頂 五六日一與食起之令洗浴 數起者 令子冷 又不起者 形身冷 並不能善抱

거위와 집오리

거위와 집오리는 한해에 재차 부화된 것이 좋은 종자가 된다. 거위는 첫배가 십여수이나 집오리는 수십 수이며 두 세배로 갈수록 점점 그 수가 작아진다.

○집오리알에 동우리를 지어 여우와 너구리의 피해를 막는다. 동우리에는 가는 풀을 많이 넣어 다쪼개하되 먼저 백색의 나무를 알과 같은 모양으로 깎아 동우리마다 한개씩 넣어 알을 그곳에서 낳도록 유인한다.

가참지 않은 동서쪽의 개천에 살기를 좋아하고 홀로 동우리에 들어가기를 즐기지 않는다. 동우리에 들어간 자들은 동우를 다들 염려가 있다. 알을 낳으면 즉시 거둘 것이며 따로 따뜻한 곳에 두고 덮어 출지니 만일 동우리에 오래 두면 얼어죽게 된다.

○부화할 때에 큰 거위는 열개, 큰 집오리는 이십개의 알을 넣어 주되 몸이 작은 것은 그 수를 감하여 줄 것이며 많이 넣어준즉 부화하기 어렵게 된다.

부화시 동우리에서 여러번 들락거리는 놈에게는 부화를 때까지 말것이며 아무리 알 품기를 탐하드라도 최대 5~6일만에 한번은 먹이를 먹어야 하고 일어나 세욕(洗浴)을 하여야 한다.

자조 들락거리는 놈은 부화하는 알이 싸늘해지며 반대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는 놈은 자기 몸 자체가 싸늘해 지므로 들다 알을 잘 품는 놈으로 볼 수 없다.

○鵝鴨皆一月雛出 欲出時四五日內 聞紡車畚群及 大叫如猪 犬亂叫之 群雛多厭殺雛既出籠之先以粳米爲粥 糜一頓飽食之 名曰填嗉 不爾病噎死 然後以粟飯 功苦菜蕪菁爲食 以清水與之 獨則易不易泥 寒鼻則死 入水中不用停 久尋宜驅出 此既水禽不得水即死 臍未合久在水中冷徹亦死 於籠內 高乾處敷細草 令寢處其上 以腹未合 不款冷也 十五日後 乃出籠早放者 乏力致困 又病冷 兼招鳥鳶之災

○鵝唯食五穀乃草菜 不食生虫 鴨靡不食矣 鵝

鴨六年以上老 不復生伏宜去之 小者初生伏又未能工 唯數年者佳耳

○供厨子鵝百曰 以外子鵝六七十日佳 過此肉硬
○純取雌鴨 無令雜雄 足其粟豆 常令肥飽 一鴨便生百卵

○거위와 집오리는 모두 1월에 병아리를 내보낸다 병아리를 동우리에서 내고자 할 때에는 4~5일 전부터 물레나 방아의 소리를 들리게 할 것이며 돼지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개가 어지러히 짖는 소리를 내면 병아리의 무리는 죽을까 크게 두려워 하여 빨리 동우리에서 나와 버린다. 병아리는 먼저 맷쌀로 죽을 쑀어 주고 좁쌀한 돈을 배부르게 먹이는 바 이를 이름하여 진소(填嗉)라 하며 병들고 기침하는 놈은 죽을까봐 멀리 두지 않는다. 그런 후에 좁쌀밥과 무배추 자른 것을 맑은 물과 함께 준다. 홀로 있을 때는 진흙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며 코가 매키면 죽는다. 물에 들어감을 막지 말며 오래 기다렸다가 몰아 낸다. 이들은 물새들임으로 물을 얻지 못하면 곧 죽는다.

배꼽이 아물지 않은 채 오랜 동안 물속에 있으면 차거워 죽게 된다. 동우리 안에서는 높고 마른 곳에 가는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자도록 하며 또한 배가 아물지 않아 차거우지 않도록 한다.

부화 15일 후에 동우리에서 내어 놓이 두면(早放) 너무 빨리 탈기하여 곧 피로하게 되며 추워서 병들게 될 뿐만 아니라 까마귀와 솔개의 재앙까지 부르게 된다.

○거위는 오직 5곡과 풀 및 채소를 먹으며 살아있는 벌레를 먹지 않으나 집오리는 살아 있는 벌레도 잘 먹는다.

거위와 집오리는 6년 이상이면 늙어서 다시 알을 낳거나 부화하지 못하므로 마땅히 도태하여야 하며 헛것은 처음에 알을 낳거나 품는데 능하지 않으나 두어 해 지나면 능숙하여 진다.

○식용으로서의 거위는 60~70일이 매우 좋으며 100일까지는 무방하나 이 이상되면 살이 굳어져 썩 좋지는 않다.

○숫놈이 쉬이지 않게 순수한 암 오리만을 취하여 좁쌀과 콩을 풍족하게 항상 배불리 살찌게 먹이면 집오리 한마리에 100개의 알을 낳는다.